

## 국방예산 평시 기준 ‘사상 최대’ 편성



▲ 미국의 한 공군 기지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정비하고 있는 공군정비사들. 사진=shutterstock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평시 기준 사상 최대 국방예산안을 반영한다

9일 ‘세계일보’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차기연도 예산안에 8,3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가 책정한 국방예산 8,160억 달러보다 2.3%가량 많은 것으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를 제외한 평시 국가안보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무기구매에 1,700억 달러, 연구개발에 1,450억 달러가 편성됐다.

이처럼 국방예산이 늘어난 폐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하는 중국과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장비와 첨단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주로 불거지던 미·중 갈등이 옮겨들어 ‘정찰 풍선 사태’ 등 군사 안보로도 옮아 붙으면서 군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방예산 증액의 주된 수혜 대상 중 하나로 F-35 스텔스 전투기가 꼽힌다. 블룸버그는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전투기 구매·개발·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35억 달러가 책정됐으며, 미국방부는 83대의 F-35 전투기를 새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예산교서에는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군수 물품 예산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BTS가 먹는 떡볶이”… 미국 떡볶이 판매량 급증

미국 NBC가 미국에서 일고 있는 떡볶이 인기에 대해 보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NBC는 최근 미국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키트 형태의 떡볶이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고, 관련 전문 식당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인기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NBC는 그 예로 가수 BTS 멤버 지민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며 미국 팬들 사이에서 떡볶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NBC는 또 뉴욕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처음 문을 연 떡볶이 전문 레스토랑이 올해 2월 두 번째 점포를 확장할 만큼 떡볶이가 인기라고 보도했다. 이 떡볶이 전문점은 뷔페 형식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떡과 소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먹을 수 있다. 떡 종류도 고구마떡부터 밀떡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으며 소스는 미국인의 입맛에 맞춘 달콤 매운 로제, 카르보나라 소스 등이

**Tteokbokki takeover: America's next food obsession is the ultimate Korean comfort food**

Demand for the Korean street food staple has spiked in the U.S., with online sales increasing and new restaurants now offering varieties of the spicy dish.



▲ 미국 내 떡볶이의 인기를 다룬 NBC 기사. 사진=nbcnews.com

준비됐다.

매운 맛으로 유명한 한국 떡볶이 브랜드도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NBC에 따르면 LA에 있는 ‘동대문 열기떡볶이’는 ‘미친 듯이 매운 떡볶이’로 인기를 얻으며 이 떡볶이를 먹는데 도전하는 ‘떡볶이 챌린지’가 연일 SNS에 올라오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임신중절약’ 판매 공방 확산

미국의 낙태권 논쟁이 임신 중 절약(낙태약) 판매 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신 중 절약 미페프리스톤은 엄격하게 관리돼 오던 약이다. 과거에는 처방전을 받아 병원이나 일부 지정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FDA는 올 1월 처방전이 있으면 월그린이나 CVS와 같은 체인 약국에서도 이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그러자 낙태에 반대하는 텍사스, 플로리다, 유타 등 공화당 성향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월그린과 CVS에 낙



▲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사진=opb.org

태약을 판매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에 월그린이 이 20개 주에서의 판매 중단을 밝히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월그린에 해당 방침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FDA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낙태 반대’ 의사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에 FDA를 상대로 미페프리스톤 판매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등 ‘낙태 찬성’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지난달 워싱턴 연방법원에 “FDA가 낙태약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며 소장을 냈다. 만약 텍사스 법원이 FDA의 미페프리스톤 판매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미 전역에서 이 약의 판매가 금지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낱말퍼즐 정답

1	공			2	당	선	3	작	
4	포	복	5	절	도		6	심	의
7	지	탄		차			삼		
필		8	가		9	초	10	지	11
12	목	13	부	14	답		15	게	관
									제
									16
온									온
18	도								기
									17
									재
									택
									근
									무
									실

### 146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8		3	1			9		
						6	1	8
						2		4
7								
9						1	8	
1		5	9					6
2						6		1
		6	4				1	
5		2	7		1			9
						3	5	